

주민 참여형 연극·옛 녹두서점 재현 ... 예술로 광주 뒤덮는다

광주비엔날레 D-10 ... 오프닝 행사 풍성

익혀져 가는 농업 주제 '도롱뇽의 비탄' 등 공연 무등현대·의재미술관 등 전시관 광주·전남 확장

옛 녹두서점 대표가 이야기하는 5월 광주, 익혀져가는 농업을 다룬 주민 참여형 연극, 인간 욕망을 표현한 연극.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들이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과 준비한 오프닝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며 개막 분위기를 띄운다.

슬로베니아 아폴로니아 슈스테르쉬치와 배다리 작가는 두암2동 누리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과 개발 위주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부터 주민 대상 워크숍 '두암동 교실'을 연 데 이어 27일 '도시계획, 두암동' 설명회(오후 4~6시), 길거리 파티(6~9시)를 진행한다. 진행 과정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비엔날레 기간 상영되며 9월3일(오후 5~7시)에는 도시화에 대한 강연이 열린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제1전시실에 '녹두서점-산 자와 죽은 자, 우리 모두를 위한'을 설치한 스페인 도라 가르시아도 워크숍·토론을 펼친다. 8월30일(오후 2~6시), 31일(오후 1~4시) '사건과 활자: 대자보 워크숍'을 마련했다. 31일(오후 4~6시)에는 옛 녹두서점 대표 김상훈·정현애 부부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열린다. 9월2일(오후 3시~4시30분)에는 '녹두 토론: 들불 야학, 윤상원 열사'와 파리로코넬의 영향'을 주제로, 1980년 당시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나명관씨와 전영호 소설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준비했다.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라 작가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 친환경 공동 경자 비영리민간단체 '한새봉 두레'와 협업했다. 9월3일(오후 4시30분, 오후 6시30분), 9월4일(오후 5시) 개구리는 일대에서 연극 '도롱뇽의 비탄'을 공연한다. 작가가 대본을 쓰고 주민들이 출연한다. 씨앗, 개구리, 농부 등이 도시가 개발되며 아픔을 겪었던 땅과 농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8월31일 오후 4시 이주요와 정지현 작가는 중외공원 일대에서 'Objects and Machine'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나이지리아 출신 오토봉 영강가 작가는 31일(오후 5~6시), 9월1일(오후 3~4시) 제3전시실에서 토지와 인간 욕망을 표현하는 댄스를 선보인다. '직선은 어떤 느낌일까?' 설치 작품을 출품한 빅 반 데 폴 작가는 9월5일(오전 11시~오후 2시30분) 오월 어머니집 초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곳곳에도 작품이 전시되며 광주를 현대미술로 몰들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영국 크리스트퍼 쿨렌드란 토마스가 새로운 도시 재생 계획에 대해 고민하는 '뉴 일림(New Eelam)'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무등산 자락 무등현대미술관에는 네덜란드 베른 크라우스 작가가 광주 시민과 등산객, 여행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 '정



난민 작가 작품 '카-펫-탈리즘' Alism)'이 설치돼 있다.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9월2일)을 앞두고 작품 설치가 한창이다. 22일 오후 비엔날레 전시관 3~4관을 잇는 통로에 난민 생활을 경험했던 아제르바이잔 출신 바비 바빌로프 작가가 다양한 언어로 사회·정치적 문구를 표현한 작품 '카-펫-탈리즘(Car-Pet-Alism)'이 설치돼 있다.

원이 아닌 정원(T.U.N. Tradgard Utan Nann)'을 설치한다. 의재미술관에서는 구닐라 클링버그가 한국 풍수지리와 오행, 산 등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고요함이 쌓이면 움직임이 생긴다'를 전시한다. 우제길미술관에서는 네덜란드 사스키아 누어 판 임호프의 작품 '#26'을 만나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멕시코 예술가 집단 '코퍼레이티바 크라타 인베르티도'와 르완다 출신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이집트 아스미나 매트왈리와 필립 리즈크 작가가 협업한다. '아랍의 봄' 등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정치·사회적 이슈와 광주 역사를 공유하는 다양한 설치 및 영

상작품을 선보인다.

중외공원 내 야외공연장 일대에서는 독일 나타샤 사드르 하기기안과 아쉬칸 세파반드가 '탄소연극'을 공연한다. 정치·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석유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또 광주 서구문화센터 앞 전광판에서는

31일부터 11월6일까지 야트막 우트가 만든 1분 분량 영상 '단결된'을 상영한다. 경찰이 손 최루탄에 맞아 희생된 터키 초등학생이 등장해 최루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문의 062-608-422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민주 지도부 親文 일색 가능성 ... 文에 독될까 약될까

13개 시도당위원장 포진 ... 당 단결엔 긍정적

'도로 문제인 당' 프레임 간혀 非文 합류 한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친문(친 문재인)·주류 진영 인사들이 대거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지난 21일 전국 순회 대의원대회가 종료되면서 16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전남·제주·대구를 제외한 13개 위원장을 친문·주류 성향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번 전대부터는 광역시도당위원장들

가운데 호선을 거쳐 5명이 최고위원을 맡는 만큼, 차기 지도부에 친문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리라는 예측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다.

당권 경쟁에서 친문 진영의 물 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민주는 과거보다 더욱 친문·주류 색채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친문·주류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아당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분열을 피하고 대선까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이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해 분당사태를 거치면서 당원들은 더 이상의 계파 갈등에 견딜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다"며 "오히려 성향이 비슷한 인사들이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당이 단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문·주류 지도부 등장은 문 전 대표의 확장성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그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도로 문제인 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물론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등

당내 다른 대권주자나 비주류 진영의 반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도보다는 진보 색채가 강화될 수 있어 대선을 앞두고 중원을 차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문 진영 인사들이 더민주 지도부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도로 문제인 당'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호남과 비문 진영의 지지를 결집시키는데 한계를 보이는 등 악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차기 지도부가 대선 경선 통과와 야권 통합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입지 넓어진 孫, 정치적 동지 어디에?

13일 김종인 극비 회동 조만간 박지원 만날 듯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장악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지도부 장악이 예상되면서 정계복귀를 앞 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주가가 뛰고 있다. 원내 1·2당이 특정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중도 진영에 빈자리가 생기면서 손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측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와 함께 정치적 동지를 어느 곳에 틀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손 전 대표는 지난 21일 박형규 목사 빈소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만남 자리에서 "조만간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는데 합의했다. 또 손 전 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의 이르면 이달 내에 회동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오는 27일 퇴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지난 13일 극비리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이후의 '행선지'와 관련, 김 대표는 "더민주에 들어왔느냐.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 우리 당에 오긴 힘들 것"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대표가 더민주나 국민의당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중원에 자리를 잡고 야권의 정권 창출을 명분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탭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이달의 추천여행지] 필리핀 - 보라카이

너는 나만... 보라카이 BORACAY

SM DUTYFREE ₩10,000

SM면세점 1만원 특별 적립금
* 특전 적용이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p>하나Pack 캐주얼 APP110</p> <p>[추천여행지] Diet 상품-페어웨이 보라카이 5일</p> <p>42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어웨이 리조트 (프리미어 룸) 매일 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세일링 보트, 코코넛 오일 마사지 	<p>하나허니문 캐주얼 APW111</p> <p>[가격 포함] 해안 라군 리조트 보라카이 5일</p> <p>83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 라군 리조트 (디럭스룸) 매주 일/월 세부퍼시픽/필리핀항공 크리스탈 코브 호핑투어/발마사지(30분)
---	---

무안출발 여행지

하나Pack 클래식 CBPF04

[히트상품] 전신마사지
북경·면산·태항산 5일

1,0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50~/선택경비 있음

- 매주 금
- 아시아나 항공
- 전신마사지 (60분/\$30 상당) 포함.
- 특식 2회 (산채비빔밥, 한식)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인원 불이행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여행]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텔 2성급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철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